

프로축구 7일 킥오프

수원 VS 삼성 개막전...9개월 대장정 올라 전남 7일, 광주 8일 서울·대전과 첫 경기

프로축구가 오는 7일 오후 3시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지난해 정규리그 챔피언 수원 삼성과 FA컵 우승팀 포항 스틸러스의 메인 개막전을 시작으로 9개월여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대대적인 선수 보강으로 자존심 회복을 노리고 있는 전남 드래곤즈는 7일 오후 3시 30분 서울 FC를 광양으로 불러들여 개막전을 갖고, '리틀 마라도나' 최성국이 새로 합류한 광주 상무는 8일 오후 3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대전 시티즌과 시즌 첫 경기를 치른다.

최순호 감독을 사령탑으로 한 신생팀 강원FC가 합류하면서 2009 정규리그는 15개 팀이 30라운드에 걸쳐 팀당 28경기씩 경기를 치르는 방식으로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가리게 된다. 12월6일 챔피언결정전 2차전까지 9개월에 거친 '그라운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팀이 하나 늘어 총 15개 팀이 됐다는 것이다.

2개 팀에게 주어지던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 티켓도 4개 팀에게 주어지면서, 지난해 정규리그 1~3위(수원, FC서울, 울산 현대)와 FA컵 우승팀(포항) 등 네 팀이 챔피언스리그에 도전한다.
기록행진도 이어진다. 울산 현대에서 인천 유나이티드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우성용(36·115골)은 앞으로 골을 넣을 때마다 K리그 최다골 기록을 새로 쓰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빠른 패스·위치 선정이 중요”

홍명보 감독, 예비 태극전사 '육석가리기' 돌입

“항상 생각하고 붙을 차라. 동료와 나의 위치를 확인하라”
홍명보(40)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 감독이 200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9월·이집트) 본선을 향한 대장정에 나서면서 ‘홍명보식 축구’를 완성해줄 예비 태극전사들의 ‘육석 가리기’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감독은 지난 23일 사령탑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선수들의 조직력과 창의성, 희생정신, 축구 지능을 강조하면서 공수의 간격을 좁히는 총출력 축구를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특히 “이탈리아 축구가 수비적인 모습으로 알려졌지만 매우 공격적이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며 자신의 축구 색깔을 살짝 내비쳤다.
이를 토대로 홍 감독은 자신의 축구 색깔에 맞는 28명의 1차 소집훈련 명단을 발표하고 2일부터 광주NFC(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본격적인 선수 평가에 나섰다.

첫 훈련인 만큼 홍 감독은 패스와 위치 선정 등 기본기의 충실도를 토대로 선수들의 모습을 관찰했고, 아쉬운 점이 발견될 때마다 직접 나서 선수들에게 예정이 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오는 7일 프로축구 K-리그가 개막함에 따라 프로팀에서 뛰는 기성용(서울), 구자철(제주) 등 주요 선수들이 합류하지 못한 상황에서 U-20 월드컵 무대를 꿈꾸는 예비 태극전사들은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려 부단히 그라운드를 뛰었다.
홍 감독은 1차 소집에 이어 오는 16일 시작하는 2차 소집 때에는 정규리그 경기에 나서지 않을 프로팀 선수들을 합류시켜 팀을 보강하고 나서 이달 하순에 시작하는 2009 이집트 초청대회에 출전할 24명의 최종 엔트리를 결정하기로 했다.
홍 감독은 훈련을 하면서 “동료와 나의 위치를 확인하라”, “항상 머리를 써야 한다. 생각을 하면서 붙을 차라”며 선수들을 독려했다.
이날 훈련을 지켜본 조영증 축구협회 기술교육과장은 “홍 감독의 축구 철학은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패스의 질과 방향, 컨트롤의 3박자를 선수 선발의 기준으로 삼을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홍 감독은 지난 23일 사령탑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선수들의 조직력과 창의성, 희생정신, 축구 지능을 강조하면서 공수의 간격을 좁히는 총출력 축구를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특히 “이탈리아 축구가 수비적인 모습으로 알려졌지만 매우 공격적이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며 자신의 축구 색깔을 살짝 내비쳤다.
이를 토대로 홍 감독은 자신의 축구 색깔에 맞는 28명의 1차 소집훈련 명단을 발표하고 2일부터 광주NFC(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본격적인 선수 평가에 나섰다.

첫 훈련인 만큼 홍 감독은 패스와 위치 선정 등 기본기의 충실도를 토대로 선수들의 모습을 관찰했고, 아쉬운 점이 발견될 때마다 직접 나서 선수들에게 예정이 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오는 7일 프로축구 K-리그가 개막함에 따라 프로팀에서 뛰는 기성용(서울), 구자철(제주) 등 주요 선수들이 합류하지 못한 상황에서 U-20 월드컵 무대를 꿈꾸는 예비 태극전사들은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려 부단히 그라운드를 뛰었다.
홍 감독은 1차 소집에 이어 오는 16일 시작하는 2차 소집 때에는 정규리그 경기에 나서지 않을 프로팀 선수들을 합류시켜 팀을 보강하고 나서 이달 하순에 시작하는 2009 이집트 초청대회에 출전할 24명의 최종 엔트리를 결정하기로 했다.
홍 감독은 훈련을 하면서 “동료와 나의 위치를 확인하라”, “항상 머리를 써야 한다. 생각을 하면서 붙을 차라”며 선수들을 독려했다.
이날 훈련을 지켜본 조영증 축구협회 기술교육과장은 “홍 감독의 축구 철학은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패스의 질과 방향, 컨트롤의 3박자를 선수 선발의 기준으로 삼을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강진서 전국태권도대회 개막

5~12일 국민체육센터
200여팀 3,000여명 참가
규칙 바뀌어 화끈해 질 듯

2009 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강진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대한태권도협회가 주최하

고 전남태권도협회가 주관하며 강진군과 강진군태권도협회가 후원한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200여개팀 3,000여 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참가하여 태권도협회의 개정된 규칙으로 겨우내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룬다.

또한 고등부와 일반부로 나뉘어 열리는 이번 대회는 고등부 경우 우수선수 발굴과 고교선수들의 대학 진학 혜택을 주기위해 고학년(3학년)과 저학년(1·2학년)으로 나누어 경기가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 광주는 광주체육고 등 4개교 총 77명이 출전한다.
전남은 전남체육고 등 8개교 총 134명이 참가한다. 신인들의 등용문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종별선수권태권도대회는 그동안 입상 성적이 없는 선수들만 참가해 국가대표 선발전 보다 더 재미있고 화끈한 명승부가 자주 연출되곤 한다.
이번 대회 개최식은 3월7일 오전 11시 강진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i@kwangju.co.kr

■전국 종별 태권도 선수권
■광주 참가팀(4개교 77명)

광주체육고	남자 25, 여자 9
국체고	남자 11, 여자 11
문성고	남자 21
첨단고	남자 11

■전남 참가팀(8개교 134명)

영광고	여자 9
전남체육고	남자 5, 여자 5
광양고	남자 38
순천공고	남자 22
여수고	남자 14
영광실고	남자 14
상화대	남자 12
동신대	남자 12



서리나, 언니 비너스 꺾고 우승컵
서리나 윌리엄스(랭킹 1위)가 3일(한국 시간) 미국 뉴욕 매디슨 스퀘어가든에서 열린 열린 테니스대회 결승에서 언니 비너스(5위)의 볼을 받아 넘기고 있다. 이날 서리나는 2-0으로 승리, 우승컵을 안았다.

서리나 윌리엄스(랭킹 1위)가 3일(한국 시간) 미국 뉴욕 매디슨 스퀘어가든에서 열린 열린 테니스대회 결승에서 언니 비너스(5위)의 볼을 받아 넘기고 있다. 이날 서리나는 2-0으로 승리, 우승컵을 안았다.

오초아 vs 한국 남자군단 이번엔 싱가포르서 한판승부

내일부터 HSBC 챔피언스 대결

여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와 한국남자군단의 대결 장소가 싱가포르로 옮겨진다.

5일부터 나흘간 싱가포르 타나메라 골프장(파72.6천547야드)에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HSBC위민스챔피언스는 총상금 200만달러에 우승상금 30만달러를 내건 특급대회다. 78명의 상위랭커들이 컷오프 없이 72홀 경기를 펼친다.

한국 선수들은 시즌 개막전인 SBS오픈부터 지난 주 끝난 HondaLPGA타일랜드에서 상위권에 포진하는 좋은 성적을 냈지만 우승컵을 들어올리지는 못했다.

세계랭킹 1위 오초아가 올 시즌 처음 출전한 HondaLPGA타일랜드에서 여전히 위력적인 샷을 과시하며 우승해 한국 선수들의 긴

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더욱이 오초아는 작년에 처음 열린 이 대회에서 무려 20년더파 268타라는 경이적인 스코어로 우승했을 뿐 아니라 2위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과 격차도 11타로 벌렸다.
작년 이 대회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냈던 선수는 7위에 올랐던 ‘지존’ 신지애(21.미래에셋)다. SBS오픈 컷오프 이후 지난 주 태국 대회에서 차츰 샷 감각을 찾고 있는 신지애는 친숙한 코스에서 시즌 첫 우승을 노려볼 만 하다.
작년에는 신인이라 초청을 받지 못했던 박희영(23·하나금융)은 이번 주에도 상승 곡선을 이어갈 태세다. 지난 주 태국 대회에서 장염을 딛고 최하위에서 2위까지 치고 올라가는 뒷심을 발휘한 박희영은 넘치는 자신감으로 첫 출전하는 대회에서 우승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도체육회 서정복 사무처장 체육인재장학기금 500만원

전남도체육회(사무처장 서정복 사진)가 전남체육인재장학기금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장학금 10억원에 마련하기로 한 도체육회는 최근 서정복 처장이 사재를 털어 500만원을 쾌척했다. 또한 사무처 임·직원들도 조만간 기금조성에 동참하기로 했다.

도체육회에 따르면 사무처의 이같은 숭선 수범으로 전남체육인들도 기탁방법을 문의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목표액 10억원 중 지난해 전국체전 후

원금 3억5,000만원이 기금으로 이미 마련된 상태이다. 나머지 6억 5,000만원은 연차적으로 독지가의 후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10억원이 모아지면 매년 발생 이자액이 3,900만원으로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총 60여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정복 처장은 “전남체육의 발전을 위해 우수선수 발굴·육성이 시급한 시기에 기금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앞으로 목표액을 꾸준히 늘려 많은 우수선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정복기자 swseo@kwangju.co.kr



4일(수)
▲한중일 여자실업축구 (대한민국: 중

국)(13:00·MBCESPN)
▲MBC 권투 신인왕전(15:00·MBC-SPN)
▲V리그 <KT&G·도로공사>(16:40), <삼성화재·LIG손보>(18:40·KBSN S-PORTS)

“자식들한테 바랄게 뭐 있나?
모두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고마운거지!”

“요즘 효자가 별건가
그저 아무 탈없이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효자지”

당신의 이 한마디가 자식들에게 힘이 되고 건강이 됩니다.
당신의 이 마음처럼 당신께서 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건강을 낳고, 건강이 행복을 키워줍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좋은 약을 만들게 합니다.
국제약품은 모든데 생명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코멘자임 Q10 함유 종합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원형 연구)

비타민 A, C, E 보충
- 국제-에이스 큐텐은 인삼·수분·코멘자임·에이코사노이드·비타민 등
- 높은 신뢰도를 지닌, 다양한
- 성분, 과학적 임상 결과·에이코사노이드·코멘자임·에이
- 코멘자임·비타민 E·비
- 항산화효능 및 기타 여러 효능을 위한 다양한·도움
- 등·효과·내용

아연의 보충
●서울특별시 중구 동대문로 20길 11-10 (02) 478-8888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http://www.kumtenpharm.co.kr